

## 지역문학 연구에 나타나는 탈근대성의 양상

남 송 우\*

### 차 례

- |                           |                              |
|---------------------------|------------------------------|
| 1. 문제제기                   | 3. 지역문학 연구에 나타나는 탈근대성과 지역정체성 |
| 2. 지역문학 연구에 나타나는 탈근대성의 양상 | 4. 맺는말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제주지역과 광주지역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문학 연구에 나타나는 현상을 탈근대성의 입장에서 살펴본 것이다. 제주와 광주 지역 문학 연구에서는 그 지역이 지닌 4·3과 5·18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에 바탕한 지역 정체성을 문학 연구의 방향성으로 보여주었고, 대구·경북지역은 선비정신 나아가 유교라는 지역의 전통적인 사유방식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삼아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지역마다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문학 연구가 지역문학 연구에 있어서 기본 방향이란 점에서 지역정체성의 문제가 결국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역문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지역 정체성의 추구가 탈근대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역이 지닌 특수성의 추구를 통해 보편성을 해체시킨다는 점에

\*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 탈근대적인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적 특수성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허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의 인식은 하나의 중심을 전제한 보편적 세계인식을 해체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앞선 논의에서 나타난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각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다 인정함으로써 유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인 모습을 지닌다고 본다. 근대성이 유일성을 추구해왔다면, 탈근대성은 다원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문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는 각 지역마다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유일성을 초극하는 다양한 지역문학의 체계를 세워간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탈근대성, 다양성, 지역문학, 지역주의, 지역의 특수성, 보편성, 유일성, 근대성, 지역정체성

## 1. 문제제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두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전통적인 지역연구 즉 소위 말하는 지역학<sup>1)</sup>에서

1) 지역학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Region, Areas, Local이다. Region은 사회과학에서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지구(地區)를 의미한다. 특히 Region은 다른 지역(Areas)들과 구별되며 자연 지리적, 문화적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을 지칭한다. Area는 사전적 정의로 '직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길이에 대하여 평면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어떤 범위의 구역'을 의미하며 라틴어의 '마른 지역 장소'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지구의 표면으로 지칭되는 'Surface'의 일부분으로 'Area'가 규정되는 것이다. 지역연구의 의미로서의 'Area'는 오히려 미국의 지역연구의 발전 선상에서 이해함이 옳은 것 같다. Robert B Hall 교수가 보고서의 제목을 Area Studies(1947)로 작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Region'에 대한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후 동일한 용어의 사용이 점진적으로 확산되었다. 'Area' 개념의 빈번한 사용 이후 오히려 'Region'은 보다 'Local'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가

의 지역논의 차원이요, 또 다른 하나는 탈근대적 의식에 근거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전자가 강대국이 식민지를 침탈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연구에서 출발했다면, 후자는 주체적인 지역인식에서 비롯된다. 즉 전자가 근대 제국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성의 추구하고 연관된다면, 후자는 식민화 혹은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이 탈식민화 혹은 탈중앙집권화를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지역 자치 혹은 지역정체성을 자각하면서 시작된 지역연구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후자의 지역개념 속에는 탈근대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본고에서 관심하는 바는 전자에서 말하는 의미의 지역연구 차원에서의 지역 개념이 아니라, 후자의 차원에서의 논의되는 지역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발견 혹은 지역인식은 시대적인 사조의 흐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문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영역에 연관되어 있다. 문학과 인접해 있는 역사학의 경우, 지역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sup>2)</sup>의 시작도 같은 선상에 놓이는 현상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지역의 발견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라는 정치적 현실과 세계화되어 가는 국내외적인 변화가 그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한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탈근대주의적 학문 경향의 영향도 부정할 수 없다. 탈근대주의는 근대주의에 바탕을 두고 추구되어 온 모든 연구의 방향과 주제들에 대해 새로운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중심추구에 대한 탈중심의 추구를 통한 해체, 전통적인 정전에 대한 탈정

---

는 듯 하다. 'Local'은 그 본래 의미가 지방, 국부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공간적으로 중심이 아닌 주변부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므로 요즈음 'Local' 개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공간적으로 탈근대성의 성격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Local'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병주,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1」,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1호(2007), 257-260쪽 참조.

2) 양정필, 「근현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문제연구』 제17호, 2007. 12-15쪽 참조. 이 논문에서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 연구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전의 논의, 거대담론의 해체와 미시담론의 생산 등을 통한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이<sup>3)</sup> 그 모습이다.

문학연구에도 이러한 경향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지역문학 연구는 이제 탈중심을 통한 각 지역의 새로운 차이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구체적 모습의 하나가 각 지역마다 지역문학작품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 지역문학연구의 활발한 움직임이다. 그런데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나 모색은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문학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문학사에서 보편적으로 논의 대상이 되었던 작가나 작품에서 벗어나 주변화 되어 있던 작가들이나 작품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한국문학 연구 풍토 속에서는 분명 탈근대적인 속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동안의 한국문학연구는 유일한 절대의 가치를 추구해왔으며, 지역작가에 대한 가치평가를 아예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지역문학 연구는 한국문학사에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작가나 작품에서 배제되었던 작가나 작품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탈중심적인 혹은 탈정전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주변화되어 있는 작가나 작품들만을 다룬다고 지역문학연구가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 대한 논의가 지역성과 함께 보편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sup>4)</sup>. 지역문학 연구가 전체 한국문학 연구 논의에 아무런 보탬을

3) 신중화, 「탈현대성 담론의 재해석」, 『동양사회사상』 제 13집, 2006, 153쪽.

4) 지역사 연구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 연구는 ‘지역화된 전국사’와 ‘전체로서의 지역사’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한국사 일반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특정한 역사해석을 입증 혹은 반증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한국사와의 관계는 이차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해당 지역의 역사를 특수 부면만 부각시키지 않고 총체적으로 밝히며 이를 통해 지역문화 및 그 정체성 수립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 이 두 연구는 그 출발점은 비록 다르지만, 어느 쪽에서나 새로운 자료 발굴과 엄밀한 논증을 거친 수준 높은 연구성과는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 즉 수준 높은 전체사로서의 지역사라면 한국사의 새로운 해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반대로 수준 높은 지역화된 전국사 연구는 해당 지역에 새로운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

줄 수 없다면, 그 의미는 반감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문학 연구는 단순히 지역에 묻혀있는 작가나 작품의 발굴을 넘어서 그 작가의 작품에서 구현되고 있는 지역성 즉 지역의 정체성 발견과 함께, 그 정체성이 보편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지역문학이 추구하는 그 지역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역문학 연구에 나타나는 지역정체성을 문제시한다는 자체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의 주체를 세우는 탈중앙을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정체성 추구는 지역과 지역간의 관계를 중앙과 지방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라는 수평적 관계로 이행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문학 연구 논의에서 나타나는 탈중앙의 지향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탈근대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지역문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역 정체성의 구현이 어떻게 탈근대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지에 관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지역문학에 나타나는 탈근대성의 문제에서 탈근대성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시대의 사조로서 나타나는 해체와 탈정전, 미시담론의 생산, 다양성과 차이 등 탈근대성의 양상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지역의 정체성 추구 때문에 나타나는 탈근대적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한국사회에서 근대성의 추구로 인해 매몰되거나 상실된 요소들이 지역의 논리에 의해 새롭게 복원되거나 재해석되는 경우를 탈근대적 양상의 하나로 보고자 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전근대적이라 여기는 가치나 정신들이 근대화를 통해 몰가치화된 것들이 근대성을 초극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로 재인식되는 경우를 탈근대적인 양상의 하나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내보이고 있는 지역문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지역정체성은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하기가 힘들다. 탈중앙을 통해 실현해가고자 하는 주체적 지역주의가 각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

양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우선 제주지역, 광주지역,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지역문학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지역 정체성 논의가 어떤 탈근대적인 성향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지역문학 연구에 나타난 탈근대성의 양상

지역문학 연구에 나타나는 탈근대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역문학 연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작업은 국내 모든 지역문학 연구의 현황을 한꺼번에 다 살필 수는 없다. 그래서 몇 지역문학권을 중심으로 지역문학 연구에서 확인되는 탈근대적인 내용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 지역으로 우선 논의 대상이 되는 곳이 제주지역, 광주지역, 대구·경북지역이다.

제주지역은 언어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다른 지역과는 변별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다른 지역보다는 지리적, 공간적으로 지역문학의 주체성을 세워나가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광주지역은 5.18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한 지역으로, 이로 통해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문학적 토양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광주지역의 역사적 체험은 5.18문학이란 하나의 특수한 지역문학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유학적 사유가 깊은 지역

---

5) 지역문학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역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조동일의 경우, 지방문학사의 서술단위가 되는 지방은 그 범위를 미리 한정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호남문학, 영남문학, 같은 대단위, 전남문학, 대구문학 같은 중단위, 고창문학, 통영문학 같은 소단위 그보다 더 작은 단위가 모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우선 대단위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해 가려고 한다. 조동일, 「지방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지방문학사』, 서울대출판부, 2003, 206쪽 참조.

으로서 다른 지역과는 변별되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문학의 특수성 나아가 지역문학 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역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제주지역문학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탈근대적 양상을 살핀다. 제주지역에서의 지역문학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논의에 값하는 대상으로는 제주지역 문학 연구를 실천한 김동윤, 김병택, 양영길 등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주 지역 문학연구에 나타나는 탈근대적인 양상을 논의해 본다.

김동윤은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에서 4·3문학의 전개 양상을 <비본질적·추상적 형상화 단계>(1948-1978),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1978-1987), 본격적 대항담론의 단계(1987-1999), 새로운 모색의 단계(2000- ) 등 4시기로 구분하고, 4·3문학이 구체화됨으로써 4·3사건이 공산폭도의 사건이라는 공식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다고 본다. 특히 <본격적인 대항담론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대항담론이 공식역사에 확실히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sup>6)</sup>고 본다. 즉 소설에서 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 고시홍의 「얼굴없는 사람들」, 김석희의 「땅울림」 등, 시에서 김명식의 『한락산에 피는 꽃들』, 김경홍의 『인동꽃반지』, 강덕환의 『생말타기』 등의 작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 작품들은 4·3이 문학 작품 속에서 구체화되기 전까지의 지배담론에 대해 저항담론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역사를 해체하고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제주지역의 4·3을 다른 문학작품들이 계기가 되어, 4·3의 역사적 진실이 밝혀져 기존의 공식역사가 와해되고 대항담론에 의해 새로운 공식역사가 채택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sup>7)</sup>고 평가한다. 제주지역이 간직하고 있던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사건을 문학이 형상화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할 뿐만

6) 김동윤,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72쪽.

7) 김동윤, 위의 책, 73쪽.

아니라, 이로 통해 제주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의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확인은 제주지역문학의 특수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바로 문학담론을 통한 지역사의 새로운 해석이란 점에서 탈근대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근대성은 조국의 근대화라는 명제에 충실히 복속하는 방향에서 실현되어 왔기에 개발독재에 의해 지역의 역사가 왜곡되거나 은폐되어 온 측면들이 많다. 4·3의 역사 역시 그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특수한 근대성의 추구가 낳은 왜곡된 역사를 4·3을 다룬 작품들이 새로운 역사적 진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제주지역의 4·3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세우기를 4·3을 다룬 작품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지역 문학 연구에서 탈근대적인 양상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제주지역이 문학연구에서 내세우고 있는 중심적 화두인 4·3의 문학화가 그 동안 문학 운동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운동성을 넘어선 4·3문학의 논의가 필요하다<sup>8)</sup>.

이런 측면에서 김병택이 『바람처럼 까마귀처럼』이란 4·3시선집을 다룬 「역사적 진실과 시적 진실」이란 글에서, 이 시선집에 수록된 시들은 한결같이 4·3의 역사적 진실을 시적 진실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한다<sup>9)</sup>는 평가는 4·3문학 연구를 운동차원으로부터 벗어

8) 김동윤은 「4·3문학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를 다루는 글의 결론에서 이 연구는 4·3문학 전반의 사적인 정리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는 실증적 작업이기 때문에 논의가 다소 평면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주요 텍스트의 심층적인 분석과 작가군의 성격 고찰 등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때 4·3문학이 좀더 입체적으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5·18문학 등 다른 항쟁문학·증언문학은 물론 다른 장르의 4·3문학과 대비 연구하는 작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4·3문학 연구가 계몽적인 연구 차원을 넘어 좀더 심화된 연구차원으로 나아가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9) 김병택, 「역사적 진실과 시적 진실」,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각, 2004, 57쪽.

나게 하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영길의 「통일열망시대의 4·3문학」에서 4·3문학이 현재에 그 인식방법이 다소 다원화되어가고 있지만, 아픔치유의 해원(解冤)에 주력하는 한풀이 문학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어, 4·3의 문제는 문학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0)</sup>고 보는 관점도 같은 선상에 놓인다. 즉 4·3의 문제는 제주도민의 문제에서 민족의 문제로 확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바는 4·3의 문학을 통일열망의 문학으로 재해석하는 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4·3문학을 두고 이러한 다원적 해석의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바로 탈근대적인 문학 연구의 성향을 내보이는 것이다. 탈근대성의 양상은 근대성의 추구로 인해 왜곡된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교정하는 데서도 나타나지만, 하나의 역사적 상황을 두고,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다원성의 추구 속에서도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주지역의 문학 연구는 4·3문학이란 제주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문학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지역문학 연구와는 다른 차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제주지역문학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지역 문학 정체성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 문학연구가 내보이는 성격과 비슷하게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문학적 담론을 형성하는 연구를 보이는 지역이 광주지역이다. 광주 지역문학 연구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5·18의 역사적 사건을 형상화한 소위 5·18문학이다.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광주지역문학 연구에 나타나는 탈근대성의 양상을 살펴본다. 5·18문학에 대한 연구는 조영식의 「5·18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고찰」, 주인의 「5·18 문학의 세 지평」, 안혜련의 「5·18 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 양상 연구」 등이 있는데, 이 중 안혜련의 「5·18 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 양상

10) 양영길, 「통일열망시대의 4·3문학」,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각, 2004, 38쪽.

연구」가 탈근대성의 논의에 값한다.

이 연구는 송기숙의 장편소설 『오월의 미소』, 공선옥의 「목마른 계절」,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홍희담의 「깃발」 등을 대상으로 여성 민중들에 의해 구현되는 대안적 여성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 동안 5·18 문학에 대한 논의가 남성 중심의 거대서사로만 획일적으로 분석됨으로써 주변부적 존재로 자리했던 여성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측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 했다<sup>11)</sup>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을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침묵/독백/망설임 등으로 주변화되었던 여성 언어의 가치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서사기법으로 독자를 끌어들이므로써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소설적 특징은 5·18 문학뿐만 아니라, 여성적 서사가 나아가 갈 방향까지 제시해준 것으로 평가하고<sup>12)</sup> 있다. 또한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는 남성들에 의한 파괴적 폭력성의 고발과 여성들에 의한 포용을 동시에 구현해 내고 있는 작품으로 해석한다. 즉 파괴와 포용이라는 양극을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잉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가부장제로 표상되는 남성중심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여성의 잠재적인 힘의 원천으로서 승화되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이 보여주는 5·18 문학의 성격은 죽임의 작용을 해체하는 살림의 역동성을 구현하는<sup>13)</sup> 것으로 본다.

그리고 홍희담의 「깃발」과 공선옥의 「목마른 계절」은 그간 여성만의 본성이라 불리워온 직관, 모성, 보육 등에 머무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이를 포함한 생명력, 다양성, 역동성, 순환성까지 적극 실현하는 양상이라고<sup>14)</sup> 평가한다. 즉 여성 주체들이 자매애를 통해 남성 중심의 체계를

11) 안혜련, 「5·18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 양상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1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2, 264쪽.

12) 안혜련, 같은 논문, 269쪽.

13) 안혜련, 같은 논문, 271쪽.

14) 안혜련, 같은 논문, 273쪽.

해체하고 유토피아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적 여성성이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성중심의 체계를 해체하고 유토피아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페미니즘적 시각은 근대적 페미니즘을 넘어서 탈근대 페미니즘의 차이주의와 다원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이다. 특히 유토피아적 대안이란 남녀의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적대적인 대결구도를 피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피퍼(Annemarie Pieper)는 탈근대 페미니즘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잡고 있다<sup>15)</sup>.

이렇게 광주지역 문학 연구에서는 5·18 문학을 다루면서, 페미니즘 문제를 통해 남성중심주의의 근대성을 넘어서는 탈근대적인 모습을 추출해내고 있다. 탈근대적 페미니즘 논의가 광주지역 문학에서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5·18 문학을 통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역사성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즉 광주지역 문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정체성으로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문학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앞선 두 지역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역문학 담론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 대구·경북지역 문학 연구이다. 주승택의 「선비정신과 안동문학」, 조두섭의 「대구·경북 현대시인의 생태학」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승택의 「선비정신과 안동문학」은 안동이란 지역이 지닌 전통적인 선비정신이 문학작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문학 연구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우선 안동선비라는 용어를 안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인접해 있는 예안현과 영양, 영주, 의성, 봉화, 풍기, 영해, 예천 일대의 선비들을 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sup>16)</sup>. 그리고 안동선비들 가운데서도 안동선비의 제반 특성을 가장 두드

15) 이미원, 「다원주의 시대 한국의 페미니즘」, 『사회와 철학』 제6호, 사회와 철학연구회, 2003, 124-131쪽 참조.

16) 주승택, 『선비정신과 안동문학』, 이회, 2002, 12쪽.

러지게 드러내 보여주는 16세기 후반 처사형 선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향토관과 체세관을 규명함으로써 안동선비의 정신과 본질을 해명하고 있다.

안동선비들은 향토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향토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했다<sup>17)</sup>고 본다. 또한 안동선비들은 그 처세관에 있어, 충성의 대상에서 왕가와 국가를 구분하여 생각하는데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안동특유의 국가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sup>18)</sup>. 그리고 안동선비 정신의 중심인 퇴계의 정신을 인간존중의 사고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정신이 안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퇴계가 남긴 인간존중 사상이 당대의 현실과 부딪혀 굴절된 결과가 안동을 독립운동과 함께 공산주의 운동의 본거지로 만들었다<sup>19)</sup>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선비정신의 모형처럼 인식된 퇴계의 정신이 그 당대에 끝나지 않고 이후의 시대로 유전되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발현하고 있다는 해석은 기존의 해석을 늘 새롭게 인식하는 탈정전적 의식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탈근대적 양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퇴계의 인간존중 사상이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발전해 갔다는 해석의 이면에는 기존의 틀과 체제에 저항하고 늘 변하는 시대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해체의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동선비 정신을 파악한 그는 「청량산과 안동문학」, 「금계(金溪)와 안동문학」을 통해 안동지역의 자연과 관련해서 문학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청량산과 안동문학」에서는 청량산 4성인이라고 불리는 원효, 의상, 김생, 최치원과 퇴계와 청량산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논의가 청량산과 관련된 문학작품으로 한시 한 편과 시

17) 주승택, 같은 책, 46쪽.

18) 주승택, 같은 책, 83쪽.

19) 주승택, 같은 책, 105쪽.

조 한 편에 그치고 있다. 청량산과 관련된 이들의 전설적인 삶의 흔적을 재구성해내는데, 일차적인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품에 대한 논의가 입론에 그쳐있다. 또한 「금계(金溪)와 안동문학」에서도 조선 초·중·후기에 살았던 문인인 배상지, 변영청, 김성일, 김진형 등의 시문에 나타난 작품의 내용을 해설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다. 금계란 지역성이 이들의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 지까지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 지역의 구체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문학을 논의함으로써 그 지역공간만이 지니는 지역적 특수성을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 추구해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문학의 담론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문학의 선비정신을 고전문학에서만 파악해 보려한 것이 아니라, 현대문학에서도 「조지훈과 선비정신」, 「이문열과 선비정신」을 통해 논의를 하고 있다. 「조지훈과 선비정신」에서는 조지훈의 『시의 원리』에 나타난 동서양 문학이론들의 충돌과 혼용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훈 시론에서 확인되는 동양문학이론가들의 공통된 특징을 논하고 있다. 즉 지훈의 시론에는 불교적 문학관과 유교적 문학관이 공유되어 있듯이, 고전주의 문학관과 낭만주의 문학관이 공존함으로써 자기 당착이나 논리적 혼선이 많이 나타난다<sup>20)</sup>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용어나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단장취의(斷章取義)하는 동양문학의 병폐에서 비롯된다고 해명하며, 조지훈은 동서양시론을 종합하여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이론을 형성해 보려고 노력한 시론가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조지훈이 펼친 이러한 시론의 의미가 선비정신의 어떤 부분과 만나고 있는지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만일 안동지역의 선비정신과 조지훈의 시론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지를 온전히 해명할 수 있다면, 이는 두 가지 점에서 탈근대적인 모

20) 주승택, 같은 책, 184쪽.

습을 보이는 것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조지훈의 시론을 지역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냄으로써 지금까지의 기존의 해석을 해체시키는 역할이다. 이는 조지훈의 시론을 지금까지 해명한 내용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지역문학 논의만이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선비정신의 차원이다. 선비정신은 근대성의 추구로 인해 이 시대에는 시대착오적인 가치로 치부되고 있는 정신이지만, 현대적 선비정신을 재구해낸다면, 이는 근대성을 초극할 수 있는 하나의 정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문열과 선비정신」에서도 이문열의 소설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금시조」, 「황제를 위하여」 등에 나타나는 인물인 정산, 석담, 황제가 지닌 양반의식, 선비정신을 중점적으로 논하면서, 이러한 정신은 그의 다른 소설의 인물들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앞서 논의한 「조지훈과 선비정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문열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이 보여주는 양반의식, 선비정신이 안동이란 지역과 어떤 매개항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지역문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저술이 조두섭의 『대구·경북 현대시인의 생태학』이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시문학의 문법에 따라 지역 시문학을 읽어왔는데, 이제는 지역 시문학의 생태학적 지형도를 마련하여 한국 시문학을 읽을 수 있는 문법을 발견해야 한다<sup>21)</sup>는 입장에서 대구·경북 지역 시인들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철저히 지역의 입장에서 시인들의 작품을 재해석해보고자 하는 지역 중심의 논리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의 논리를 실제 시인연구에서 얼마나 실현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의 시인들을 담론이 작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일본유학파<sup>22)</sup>, 가문파<sup>23)</sup>, 토박이파<sup>24)</sup>, 탈지역파<sup>25)</sup>로 나누고, 그 특징을 규

21) 조두섭, 『대구·경북 현대시인의 생태학』, 도서출판 역락, 2006, 16쪽.

명함으로써 한국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시인들의 주체 형태를 탐색하여, 그 주체를 구성하는 담론구성체를 일본유학파의 서구 근대성, 가문파의 가문 규율, 지역파의 지역문화, 탈지역파의 중앙문화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지역 시인의 지형도에서 이 지역의 지역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항목은 가문파에 대한 논의이다. 일본유학파나 지역파 그리고 탈지역파 시인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유가적 담론에도 주목하고 있지만, 가문파에 속한 시인들의 작품을 논하면서, 조두섭은 가문파에 내재화된 유가적 담론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문파의 논의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 시인의 지역성의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문파 논의의 대상 시인은 이육사, 이병각, 이병철, 조지훈 등인데, 조두섭은 이육사를 다루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유가적 집안 분위기,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것이나 북경 감옥에서 옥사한 것으로 이육사 시의 특징을 밝혔<sup>26)</sup>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육사 시를 해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육사에게는 유가적, 사회주의, 의열단 담론구성체의 세 개의 상이한 층위를 지배하는 최종적인 심급으로, 일종의 담론을 큰 테두리에 통합하는 무의식과 같은 초담론인 유가적 담론이라는 것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초담론은 일종의 담론구성체를 큰 테두리에 통합하는 무의식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이육사에게는 유가적 정신이라는 것

22) 일본유학파의 논의 대상 시인은 이상화, 백기만 등으로 이들의 시에 나타나는 상징주의와 아나키즘을 <내면의 발견과 유가적 초월>로 다루고 있다.

23) 가문파의 논의 대상 시인은 이육사, 이병각, 이병철, 조지훈 등으로 이들의 시에 나타나는 <유가적 담론, 유가적 초담론>을 다루고 있다.

24) 토박이파의 논의 대상 시인으로는 이병철, 이호우, 김윤식 등으로 이들의 시에 나타나는 <유가적 지식인의 현실과 이상>을 다루고 있다.

25) 탈지역파의 논의 대상으로는 박목월, 하중오, 송재학 등으로 이들의 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시적 스펙트럼의 양극>을 다루고 있다.

26) 조두섭, 앞의 책, 166쪽.

이다. 이육사 시는 현실을 매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담론구성체와 무관하다거나, 민족운동의 구체적인 현상이 매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열단 담론구성체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란 것이다. 이육사 시에서 사회주의적 현실의 구체적 통찰이, 의열단의 민족운동의 현상이 최종의 순간에 유가적 담론구성체 내에서 관념화되기 때문에 매개된 구체성은 추상화되어 버린다<sup>27)</sup>는 것이다. 그리고 이육사 시에 많이 나타나는 노정 모티브는 유가적 담론의 핵심인 천도(天道)를 내면적으로 구현하는 것<sup>28)</sup>으로 봄으로써 이육사 시에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유가적 담론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유가적 담론을 바탕으로 이병각과 이병철의 작품도 논의하고 있다. 이병각은 1930년대 후반 카프 해산 이후 새로운 리얼리즘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새로운 리얼리즘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세계관과 창작방법론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무조건 이식하지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현실에 입각하여 독자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입장으로, 이는 당대의 혼란한 문학의 좌표를 설정하려는 유가적 시중성(時中性)에 기초한<sup>29)</sup>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병철의 작품을 통해서 그가 조선문학가 동맹의 일원으로서 활동했지만, 그의 시는 뜨거우면서도 감정은 절제되고 시적 이미지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유가적 규율의 극기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가적 이미지는 퇴계학파를 계승한 가문의 전통으로 보고 있다. 이병각과 이병철은 모두 퇴계학파의 중심인물인 이현일의 직계 후손으로 전통적인 유가적 가문교육을 받고 그들 생애의 대부분을 경북 북부지방인 안동문화권인 영양과 안동에서 활동한 시인이란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전통적 토대에 기반한 시 세계의 해석은 지금까지 다른 연구자들이 계급주의 시에서 간과한 유가적 이미지를 밝혀내는 성과를 얻고 있다.

27) 조두섭, 같은 책, 147쪽.

28) 조두섭, 같은 책, 151쪽.

29) 조두섭, 같은 책, 177쪽.

그런데 이렇게 대구·경북 지역의 시인들의 작품에서 이 지역의 지역적 특성의 하나인 유가적 담론을 해석해내고, 선비정신과 안동문학을 논의해 보려는 시도는 어떠한 탈근대적 성격을 보이는가가 문제이다. 즉 전근대적인 사유로 치부될 수 있는 유교가 어떻게 탈근대적인 성격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근대성은 이성주의, 개인주의, 과학주의를 추구해왔다. 이성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주체와 객체로 이원화하고, 자연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 도구적, 기술적 이성으로 인간관계에서 도덕적 차원을 제거하여 물질적 관계로 치환한다. 그리고 개인주의는 공동체의 가치와 당위, 전통과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절대 개인을 상정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를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한다. 또한 과학주의는 자연으로부터 초월적인 힘을 박탈하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욕망을 무한히 충족시켜주도록 과학적 지식에 의해 조작당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대안 즉 탈근대적 방향성으로 이영찬은 유교에서 발견되는 대대주의, 도덕적 개인주의, 생명주의를 제시한다.<sup>30)</sup> 이성주의의 대안인 대대주의는 음양의 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중심주의와 이원적 대립구조 대신에 균형지향적, 조화 지향적 합리성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주의의 대안인 도덕적 개인주의는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자신의 도덕성(仁義禮智)을 실현하는 개인주의를 말한다. 과학주의의 대안인 생명주의는 권도(權道)와 시중(時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추상적 논리보다는 보편성과 맥락성을 모두 고려하는 미학적 조화를 말한다. 시중적 행위는 중中 즉 성성에 합당한 행위라는 점에서 도덕적 행위가 되며, 시時 즉 상황에 부합된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행위가 된다. 이 세 가지 대안은 모두 음과 양, 개인과 공동체, 맥락성과 보편성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유교의 합리성에서는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리理를 공유함으로써 동질성과

30) 최종렬, 「상징체계로서의 유교와 탈현대」, 『동양사회사상』 제13집, 2006, 185쪽.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와 객체, 사실과 당위가 분리되지 않기에 가능하다<sup>31)</sup>고 본다. 이러한 가능성은 유교의 사유가 탈근대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sup>32)</sup>. 그래서 유교적 관점에서 「탈근대성 담론의 재해석」<sup>33)</sup>이나 탈근대학문 언어체계로서 유교 학문론<sup>34)</sup>을 논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가적 사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수용한다면, 근대성의 추구로 상실한 유가적 사유가 충분히 탈근대성의 한 양상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3. 지역문학 연구에 나타나는 탈근대성과 지역정체성

지금까지 제주지역과 광주지역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문학 연구에 나타나는 현상을 탈근대성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제주와 광주 지역 문학 연구에서는 그 지역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에 바탕한 지역 정체성을 문학 연구의 방향성으로 보여주었고, 대구, 경북지역은 선비정신 나아가 유교라는 지역의 전통적인 사유방식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삼아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지역마다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문학 연구가 지역문학 연구에 있어서 기본 방향이란 점에서 지역정체성의

31) 최종렬, 같은 논문, 186쪽.

32) 유교가 지닌 탈근대성의 성격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전근대적 사유의 한 모형처럼 인식되어온 유교적 사유가 어떻게 탈근대적인 사유로 논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부터 다양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성의 추구를 통해 빚어진 많은 문제를 초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교적 사유에서 찾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리라고 본다. 그 가능성의 시도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문학이 내보이는 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33) 신중화, 「탈현대성 담론의 재해석 -탈현대시대의 현대성 발현을 위한 유교적 관점에서」, 『동양사회사상』 제13집, 2006, 133-159쪽.

34) 오세근, 「유교 학문론 · 공부론의 탈근대학문 언어체계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13집, 2006, 53-91쪽.

문제가 결국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지역문학 연구에서 다루는 대상은 다양하다. 지역의 작가, 작품, 배경 등 여러 요소가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문학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명제는 그 지역을 다루는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성 즉 지역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이 지역 정체성이란 그렇게 쉽게 규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 지역의 정체성이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면서 생성되어가는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된다. 지역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을 이루는 물리적 배경으로서의 공간과 삶의 주체인 인간, 그리고 인간집단으로서의 사회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간 생활의 다양한 층위들이 누적, 혼합되어 만들어지게 되는, 인간사유의 결과로서 구성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자체는 하나의 실체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개념적 구성물로 존재하는 인식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 구성원들이 내부적 범주화 작용을 거쳐 상상적으로 구성하는 상상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지역성이 단순히 지리적 차원이나 규모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맥락적인 차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5)</sup>.

문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인식이 각 지역마다 새롭게 논의되면서,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 정체성 규명 작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문학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역정체성의 규명은 지역문학 연구의 본질이며, 궁극적 지점이란 점에서 핵심적 사안이다. 지역문학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부분이 작품 속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인 지역의 특수성을 찾아내어 그 의미를 부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 정체성 추구가 어떤 측면에서 탈근대적인 속성을 지니는가를 해명해 볼 필요가 있다.

35) 유종원, 박세종, 「지역공동체와 지역신문의 지역성 개념에 대한 평가」,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5, 11쪽.

첫째는 지역이 지닌 특수성의 추구를 통해 보편성을 해체시킨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인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동안의 한국문학 연구 흐름의 주조는 문학사에서 중심을 이루는 작가나 작품에 국한되어 있었다. 문학 연구 대상인 작가가 한국문학사의 중심에서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문학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지역의 작가들이 새롭게 평가되고 논의됨으로써 기존의 문학연구의 틀을 허물고 있다. 또한 지역작가이면서 한국문학사에서 평가되어온 작가도 지역문학의 입장에서 새롭게 논의됨으로써 그 평가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바탕에는 그 작가가 터잡고 있었던 그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적 특수성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허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의 인식은 하나의 중심을 전제한 보편적 세계인식을 해체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문학 연구가 그 동안 즐기차게 지향해온 한국적인 것의 가치를 통해 세계적인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지역적인 특수성이 결국 특수성으로 머물지 않고 보편성을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문학 속에서 지역문학 연구는 탈근대성과 함께 근대성의 추구가 혼종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지역성의 발견이란 특수성을 통해 한국문학 연구가 지향하는 보편성에 틈새를 낸다는 점에서는 탈근대적인 양상을 보이나, 그 특수성 자체 역시 궁극적으로는 보편성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역문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모색에 또 다른 과제를 남기고 있다.

둘째는 앞선 논의에서 나타난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각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다 인정함으로써 유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인 모습을 지닌다고 본다. 근대성이 유일성을 추구해왔다면, 탈근대성은 다원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문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는 각 지

역마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문학의 체계를 세워간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각 지역마다의 특수성은 결국 다양성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탈근대성의 특징인 다원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4. 맺는말

본고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문제는 첫째 지역문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탈근대적인 양상의 확인이며, 둘째는 이 양상이 지역의 정체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이 두 과제를 제주지역, 광주지역, 대구·경북지역 문학연구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제주지역문학연구에서는 4·3의 문제를 문학이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역사적 문제였던 4·3의 진실이 제대로 인식되고 제주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근대성의 추구로 인해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를 고쳐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근대성의 추구가 남긴 문제를 초극할 수 있는 탈근대성의 한 양상으로 본다. 또한 4·3의 역사를 다양한 입장에서 해석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탈근대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주지역 문학의 연구의 내용은 제주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 지역문학 연구 내용과 지역 정체성과의 관계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광주지역문학 연구에서는 5·18 문학을 다루면서, 페미니즘 문제를 통해 남성중심주의의 근대성을 넘어서는 탈근대적인 모습을 추출해내고 있다. 탈근대적 페미니즘 논의가 광주지역 문학에서만 문제를

아니지만, 5·18 문학을 통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역사성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즉 광주지역 문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정체성의 하나가 탈근대적 페미니즘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구·경북 지역문학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유가의 선비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유가적 사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수용한다면, 근대성의 추구로 상실한 유가적 사유가 충분히 탈근대성의 한 양상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유가의 사상과 정신이 전근대적인 사유의 모형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근대성의 추구로 인해 상실한 인간사회의 많은 문제를 유교적 합리주의로 풀어갈 수 있다고 봄으로써 이를 탈근대성의 한 양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대구·경북 지역 문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유가적 사유는 이 지역의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있기에 지역문학 연구에서 확인되는 탈근대성의 양상은 그 지역의 정체성 모색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속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룬 지역문학 연구는 세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그 논의대상들도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논의 대상들을 더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탈근대성을 통한 지역문학연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지역정체성의 확인이라 한다면, 이 확인된 지역 정체성이 한국문학 연구에서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 참고문헌

- 김동윤,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 신중화, 「탈현대성 담론의 재해석」, 동양사회사상 제13집, 2006, 133-159쪽.
- 안혜련, 「5.18문학의 대안적 여성상 구현양상」,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1호, 2002, 261-279쪽.
- 양정필, 「근현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문제연구 제17호, 2007, 9-35쪽.
- 오세근, 「유교학문론. 공부론의 탈근대학문 언어체계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2006, 13집, 53-91쪽.
- 유종원, 박세종 「지역공동체와 지역신문의 지역성 개념에 대한 평가,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2005, 3-19쪽.
- 이미원, 「다원주의 시대 한국의 페미니즘」, 사회와 철학 제6호, 2003, 113-159쪽.
- 조동일, 『지방문학사』, 서울대학 출판부, 2003.
- 조두섭, 『대구, 경북 현대시인의 생태학』, 도서출판 역락, 2006.
- 주승택, 『선비정신과 안동문학』, 이회, 2002.

<Abstract>

## Aspect of Postmodernism found in the study of regional literature

Nam, Song-Woo

I have researched the phenomenon found in the literature study of Jeju, Gwang Ju, and Dae-gu, Kyung-buk region in the aspect of postmodernism.

In the study of Jeju and Gwang-ju region, it showed the regional identity as the direction of literature study based on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 which the region possesses. In the study of Dae-gu, Kyung-buk region, it was revealed that the study was based on the spirit of scholar, also Confucianism, which is the regional traditional method of reasoning as the regional identity. In that the basic direction for regional literature study is based on the regional identity, it is the problem of regional identity that must be the topic of the discussion.

In fact, there are various topics dealt in the regional literature study. Various aspects like the regional writer, work, and background can be discussed. The topic, however, should be dealt ultimately in the regional literature study is the regional identity, which can be found in the work deals with the region. Still, the regional identity cannot be easily defined. The regional identity of one region is not unchangeable but formulated changing at the same time.

The regional identity comes from the characteristic of the region.

The region is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the space which consists of physical background, the human as the subject of life, and the society as the human group. Therefore, it is the concept which is constructed as the result of reasoning of human being, accumulated and mingled of various layer of human lives. The region itself, is a cognitive being, which exists as conceptual structure rather than exists objectively as real being. That is,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imaginative community which is constructed in imagination by regional members' classification. It means that the regionalism should be understood not by simple geographical or structural aspects but relational and contextual aspects.

The issue is that as the recognition of these regions are discussed newly, there are various investigation works being realized for creating the regional image. Especially for the researchers of regional literature, the investigation of the regional identity is the nature of the study and also the critical issue as the ultimate destination. The part which should be realized in the study of the regional literature study should find the characteristic of that region, which is, the regional identity and be given the consequence and be systematized in the work.

Then it is need to explain about in what aspects the pursue of regional identity has the characteristic of Postmodernism.

First, it is Post -modern in point that it is to deconstruct the universality through the pursue of the particularity of the region. Until now, the main current of Korea literature study was limited to the writer or works which consist of center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The writer, the object of literature study was the people who were at

the center of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owever, owing to the study of regional literature, the established frame of literature study is being demolished as the regional writers, who were not evaluated properly, are newly evaluated and discussed. Also the writer who were evaluat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s well as the regional writer are being newly evaluated. In the basis of the evaluation, the particularity of the writers is considered. The regional particularity has the importance in the aspect that it provides the foundation for demolishing the universal system of value. The recognition of the regional particularity is post-modern in aspect that it deconstruct the general recognition of world.

However, the regional study in the Korean literature is place in the hybrid situation of postmodernism and modernism in aspects that Korean literature study has been pursuing the global universality through the Korean virtue and the particularity of region should seek after the universality. There left another problem that primarily through the discovery of regionalism is post-modern in aspect that it makes an opening in the universality which is aimed by the study of Korean literature, the particularity itself is not free from the universality ultimately.

Second, it is the phenomenon which came from the result based on the regional particularity. That is, it is post-modern in the points that it seeks the diversity rather the soleness as it recogniz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While modernism purses the soleness, postmodernism pursues the diversity. In this aspect, one characteristic found in the study of regional literature, it recognizes the identity of each region and based on that, it build the system of regional

literature, which is Post-modern. It pursues the pluralism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Post-modernism in that the particularity of each region finally brings diversity.

Key Words : Postmodernism, diversity, regional literature, regionalism, regional particularity, universality, modernism, soleness, regional identity